

공재 윤두서 '세마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서 321년만에 공개

현전하는 말 그림 중 제작연도 기록된 가장 오래된 사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 학계·미술계 큰 관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은 제 4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에서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을 321년 만에 최초로 일반인에게 전면 전시한다고 밝혔다. '세마도'는 현전하는 말 그림 중 제작 연대가 기록된 기년작(記年作)이자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왼쪽 상단에 '갑신유월일제(甲申六月日製)'라고 쓰여 37세(1704)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말 그림의 초기 기량을 가늠할 기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말을 매어두고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두 명의 관리와 강에서 말을 목욕시키는 마부들 소재로 한 그림은 현전하는 공재의 말 그림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와 '효언(孝彦·윤두서의 자)'이 날인돼 있다. 하단부 중앙에 위치한 바위 표현은 조선 중기 절파화풍을 계승했지만 소재와 필치는 중기 화가들이 그린 말 그림과 전혀 다른 중국풍의 세마도 유형이다. 인물은 정밀하고 자세하게 표현됐다. 강가에서 쉬고 있는 관리들, 나무에 매어둔 말들, 강에서 마부가 말을 씻는 장면 등 세 그룹으로 따로 떨어진 요소가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돼 있다. 이른 시기에 시도한 말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말의 근골이 잘 표현됐으며, 불 뼈가 주머니처럼 볼록 튀어나온 모양은 윤두서 말 그림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준다. '세마도'는 그동안 학계 논문이나 도록에서 일부 이미지만 소개되며, 보존 상태조차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



았던 수묵 회화다. 이번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공개를 통해 학계·미술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윤재갑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은 "고산 윤선도 해남종가의 역사성과 수묵 예술의 철학적 기반 등과 연결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수묵비엔날레가 단순한 작품 전시를 넘어 수묵 예술의 철학과 문화적 깊이를 재조명하고 지역민과 예술인,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

김할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본 전시 총 6개 전시관으로 운영, ▲해남권(고산윤선도박물관·땅굴순례문학관) ▲진도권(소전미술관·남도전통미술관) ▲목포권(문화예술회관·실내체육관)에서 20개국 83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해 수묵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수 기자



광주시립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 강좌 운영

무등·사직·산수도서관, 15개 강좌 마련... 12일부터 사전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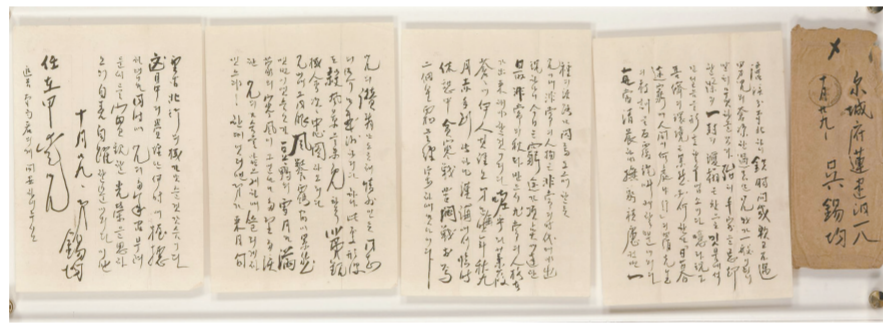
광주광역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5개 독서문화 강좌를 마련, 8월 12일부터 수강 희망자를 모집한다. 무등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사주명리학 ▲펜 하나로 시작하는 일상 드로잉 ▲생활영어회화(초급) ▲통기타 여행(초급) 등 4개 강좌를 운영한다. 사직도서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내 삶이 시가 되는 창작교실 ▲스마트폰 정복하기 ▲시민 한문교실 ▲양림을 그리다 ▲감탄 캘리그래피, 어린이를 대상으로 ▲역사 토크 인물이야기 등 6개 강좌를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성인 대상 ▲한국 근현

대소설 함께 읽기 ▲인생문장 : 고전에서 찾은 삶의 길 ▲마음을 담은 캘리그래피 ▲일상여행 어반 드로잉 ▲교양으로 읽는 서양역사 등 5개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8월 12일(화)부터 광주시립도서관 누리집 '문화강좌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등(062-613-7727), 사직(062-613-7772), 산수(062-613-7814)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시립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를 준비했다"며 "책 읽는 도시 광주'의 시민답게 독서를 생활화하고 문화강좌 참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완도군, 항일정신 담긴 '오석균의 편지' 도 문화유산 지정

1920년대 간도 지역 민족운동 지원 실체 보여주는 기록 유산

완도군 신지면 출신 독립운동가 임재갑이 간도 민족운동 지원 활동 중 받은 '오석균의 편지(사진 참고)'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문화유산 지정은 전라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보존·활용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항일 독립 유산 문화유산 지정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8일 전라남도 문화유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석균의 편지'와 더불어 8건이 지정됐으며, 전남도가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항일 독립 유산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이다. '오석균의 편지'는 경성 연건동에서, 간도 용정촌에 체류 중이던 임재갑에게 보



낸 문서로 1920년대 간도 지역의 민족운동 지원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 유산이다. 4장 분량의 편지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민족을 위한 공동체 의식 강조, 독립에 대한 절박함이 담겼다.

편지는 문서의 찢김이나 훼손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민족운동 실체를 증명하는 드문 사례로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현재 신지면 항일운동기념자료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신지항일운동기념사업회다.

임재갑이 편지를 받은 주소는 대중교 관련 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시기는 송내호의 주선 아래 간도로 파견되어 활동하던 때로 추정된다. 임재갑(1891~1960)은 완도군 신지면 출신으로, 1920년대 초 송내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수의위친계(守義爲親契)'의 비밀 회원으로 참여했고, 간도 민족운동을 직접 지원했다. 귀향 후에는 청년 운동과 교육 사업에 힘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했다. 오석균(1889~1973)은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출신의 항일 독립운동가로 주로 경성에서 활동했다. 군 관계자는 "오석균의 편지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지역이 간도 지역 항일운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면서 "앞으로도 기록 유산을 통해 미래 세대에 항일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전남도청 갤러리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24일까지... 독립기념관 전시물 30여 점 선봬

전라남도는 '빛을 되찾은 날: 광복 80주년 이야기'를 주제로 24일까지 도청 갤러리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은 독립기념관 소장 전시물 30여 점을 활용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에게 올바른 역사적 함의를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전에선 3·1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일제강점기 민족 운동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자료와 함께 소개하며,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형 전시물을 선보인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광복군의 활약을 조명하며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광복을 쟁취하기 위해 흘린 피와 노력의 역사를 전달한다. 전시 토크콘서트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찾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도, 독

립사와의 역사적 소통을 위한 '감사의 말씀 전달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손글씨로 독립군에게 감사 인사를 담아 방명록 패널에 붙이며 역사와 소통하는 공간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후손으로서의 책임감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별전은 무료로 관람 가능하며, 전시 해설은 사전 예약을 통해 운영된다. 자세한 정보는 전남도청 갤러리 운영(061-286-5443)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유산국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우리나라의 자주권 회복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도민들이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해방의 감격을 공유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 (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